

고약한 섬나라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은 세계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과정이 순조롭게 흐르고 조미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있다.

하기에 이번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 2 차 조미수뇌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이 없이 끝난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듯 박수를 쳐대며 앞집게 놀아대고있다.

지각있는 국제사회는 《지구상의 200여개 나라의 수반들가운데서 〈한호〉 한 사람은 아베뿐》이라고 하면서 속통머리 고약한 이 정치난쟁이에게 저주를 퍼붓고있다.

이전부터 이번 하노이회담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본것들이 놀아댄 못된 짓거리들을 보면 우리 행성에 과연 이런 개종자들도 있는가 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미 지난해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성과를 거두자 한방망이 얻어맞은듯 정신없이 돌아치며 종전선언을 하면 안된다,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면 안된다고 새된 소리를 질러댄 아베이다.

이번에도 엉망이 된 제 집안의 골치거리는 당반우에 올려놓은채 혹시 미국이 북조선의 대륙간탄도미싸일문제에만 집중하고 중거리나 단거리미싸일문제는 소홀히 하거나 않겠는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할수도 있지 않겠는지 온갖 상상을 다해보며 악몽이 현실로 될가봐 전전긍긍해왔다.

특히 제 2 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국제적인 제재완화분위기가 조성되자 속을 바재이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놀아댄 모양은 실로 눈꼴사나운것이였다.

아베패들은 정부관계자들을 언론에 내세워 일본은 2 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제재해제에 합의한다고 해도 대조선지원이나 경제협력에 참가할수 없다느니, 국제기구들에 일본이 낸 기부금을 대조선지원에 리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느니 하며 돈벌레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한편 아베와 외상 고노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들은 미국상전에게 겨끔내기로 전화를 걸어 《랍치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달라, 2차회담에서 저들의 《랍치문제》 해결의사를 북조선에 전달해달라고 구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는 하노이에 외무성 국장 가나스기를 급파하여 미국관계자들에게 회담과 관련한 정보들을 알려달라, 《랍치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간청하는 꼴볼견을 연출하였다.

이번에 일본이 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로비》 공작에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였다니 이렇게 지독스러운 족속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금 각국의 예리한 정치분석가들이 이번 제2차 조미수뇌회담결과의 뒤전에 일본의 《검은 그림자》가 얼터거리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무엇때문에 불청객인 일본이 조미사이에 끼여들어 훼방놓지 못해 몸살을 앓는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론하는 마당에 끼우지 못하고 개발의 도토리처럼 밀려나있는 가련한 처지를 모면해보자는것이다.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세상의 축에 들지 못하고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며 비실거리는 저들의 가련한 신세를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주는 《괴로운 사변》으로 될뿐이다.

이로부터 협상탁자체가 마련되지 못하게 해보려고 미국상전의 귀가 따갑도록 《북비핵화의혹설》과 《회담무용론》을 맹공징공 불어넣으며 별의별 축새질을 다했건만 이것은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보겠다는것만큼이나 부질없는짓이었다.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기정사실화되자 이번에는 하노이의 협상탁에 《랍치문제》라는 저들의 더러운 흥심보따리까지 올려놓아보려고 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혐오스럽게 놀아댔다.

실로 밭살스럽기 짝이 없고 귀뺨을 후려갈기고싶은 놈팽이들이 아닐수 없다.

예로부터 나쁜 사람만큼 외로운 인간은 없다고 했다.

천하에 못돼먹은 일본반동들을 세상이 썩외보듯 하는것은 필연적귀결이다.

제 뼈심으로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등을 쳐서 간을 빼먹는것이 체질화된데로부터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고 옆집 불난데서 제 바지를 말리우며 살아가겠다는 왜나라족속들을 누가 좋다고 하며 이웃으로 삼겠다 하겠는가.

주변에 불쾌감과 해악만 끼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이웃이 없는 세상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라고 대륙에서 뚝 떼어내어 태평양에 쫓겨버려놓은 조물주가 현명하다고 세인이 입모아 말하는것이 참으로 일리가 있다.

벼룩도 낫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베패당은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나서서 다리를 놓아야 할 때라며 철면피하게도 평양문을 두드리고있다.

보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그 알미운 낯짝을 감히 어디에 들이밀겠다는것인가.

우리의 시야에 그 역스러운 상통이 그림자도 비끼게 하지 말라.

우리와 상대하기에는 지금껏 지은 죄가 너무도 크거니와 미국의 갓끈에 불과한 난쟁이들을 상대해서 털끝만큼도 걸어칠것이 없다.

일본은 간특한 속통에 가득차있는 먹물을 깨끗이 토해내지 않는 한, 과거죄악을 충분히 배상하고 군사대국화의 날개를 접지 않는 한 우리와 상종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라도 모기장밖에 나앉아 력사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는것, 이것이 버림받은 일본의 운명이다.

조남진

厄介な島国の国民は天罰を免れないだろう

全世界が朝鮮半島での平和過程が順調に流れて乾燥関係が一日も早く改善されることを本当に願っている。

するに、今回のハノイで行われた第 2 次乾燥首脳会談が正常に行われて良い結果が結ばれることを願ってやみなかった内外は会談が意外にも合意文がなく終わったことについて、米国にその責任があると一様に主張し物足りなさのため息を耐えず、している。

しかし、唯一日本の反動だけはまるで古代た朗報も触れたように拍手を打ってデミヨ憎らしく遊ん当てている。

知覚の国際社会は、「地球上の 200 以上の国の首班中<応援>した人は、安倍だけだ」としながらソクトン頭厄介な政治小人に呪いを浴びせている。

以前から、今回のハノイ会談を妨害するために、日本のものが遊んでダン悪いナンセンスを見ると、私たちの惑星に、果たしてこのような改宗者もいるのかという驚愕を禁じえないようにする。

すでに昨年、シンガポール乾燥首脳会談が成果を収める漢方網が叩かれたように夢中で戻りながら終戦宣言をするべきでない、「完全な非核化」が実現される前に対朝鮮制裁を解除すると、いけないと甲高い声をあげダン阿部ある。

今回もめちゃくちやにされた第家の頭の距離ごとにバンオに乗せたままもしかしたら、米国が北朝鮮の大陸間弾道ミサイルの問題に集中して中距離や短距離ミサイル問題は無視していやないか、南朝鮮で米軍を撤退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あらゆる想像を尽くして見悪夢が現実になるみたい戦々恐々してきた。

特に第 2 次乾燥首脳会談を契機に、国際的な制裁緩和の雰囲気造成されると、中をバジエであり、ここに水をスプラッシュ遊んだん形は実にヌンコル野生のがあった。

安倍敗は、政府関係者をマスコミに出し、日本は 2 次乾燥首脳会談で、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制裁の解除に合意しても、対朝鮮支援や経済協力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か、国際機関に、日本が出した寄付金を、対朝鮮サポートに利用することを絶対に「許可」しないよりはしドンボルシの属性を余すところなく示した。

一方、安倍と外傷河野をはじめとする日本当局者は、米国主人にギョクムことで電話をかけて「拉致問題」の解決に積極的に協力してくれ、2 次会談で彼らの「拉致問題」を解決意思を北朝鮮に伝えてくれと頼むこともした。

そして、乾燥首脳会談が行われているハノイの外務省局長カナスキーを急派して、米国の関係者に協議に関する情報を教えてくれ、「拉致問題」の解決に関心を傾けてもらう重ね懇願するみっともないを演出した。

今回、日本が彼らに有利な方向に、米国が動くようにするための「ロビー」工作人的、物的資源を総動員したなんてこんなにひどくな部族が他にどこだろうか。

今、各国の鋭い政治アナリストが、今回の第2次乾燥首脳会談の結果の後に、日本の「黒い影」が急いでたてていると評しているのは、決して偶然ではない。

何のために招かれざる客である日本が朝米間に挟まれて妨害置かず、疲労をアルヌンガ。

朝鮮半島と地域の平和を論ずる場に挟まずにドッグフードのどنگりのように押し出されている可憐な境遇を免れてみようということだ。

日本の反動たちにとって第2次乾燥首脳会談は、世界の軸ではないことができずビル食べ犬のように来ていっぱいあちら満たし非現実距離彼らの可憐なお世話をさらに際立たせ浮上させてくれる「苦しい出来事」になるだけである。

このことから、交渉タック自体が用意されていないようにしようと、米国主人の帰宅かなり強いのでよう「北の非核化ウイホクソル」と「会談無用論」をメンコンジンコン吹き入れありとあらゆるチョコセ質を多けれども、これはいぼがワゴンを防いうというのと同じくらいつまらないやつであった。

第2次乾燥首脳会談が既成事実化されると、今度は、ハノイの交渉タックに「拉致問題」と呼ばれる彼らの汚れヒュンシム包みまで引き上げられて見ようと主人のズボン股間を握り、嫌悪に遊んで挙げた。

実に憎たらしスロブギペアがなくグイピヤムを殴り飛ばしガルギゴたいノムベンイが違くない。

昔から悪い人ほど孤独人間はいないとした。

天下ない無作法で食べた日本の反動を世界がスンウエ示すようすることは必然的帰結である。

第ピョシムに生きていく考えはせず、他人のを打って行ったのスキップが体質化されたことから、他人のジャンチサンに灰を振りかけ隣り火が出ところ第ズボン乾燥焙煎生きていくという理由国の国民を、誰がいいし、近所の人にしよだろろうだろうか。

周辺に不快感や害悪だけ与える、日本という国が永遠に隣人がない世界で孤独に生きて行け大陸で取引切り離し提出太平洋に吐い散布造物主が賢明だと歳が口を揃えて言うのが全く筋が通っている。

ノミもマグカップがあるとした。

しかし、安倍一味は今こそ、日本が出て足を置くことが時でと恥知らずにも平壤ドアを叩いている。

見るだけで血が逆に湧かすその心憎いマグカップをあえてどこが小麦というのか。

私たちの目の前で、その逆な等しいが影もそらすいけない。

私たちと相対するには、今まで犯した罪があまりにも大きい丹羽米国の冠のひもに過ぎない小人を相手して微塵も蹴っジュールことがない。

日本はガントウクたソクトンに完全な墨をきれいに吐き出さない限り、過去の罪を十分に補償し、軍事大国化の翼を接地しないし、私たちと交際する夢も見てはならない。

いつまでも蚊帳の外や座っている歴史から消える瞬間を待っていること、これが捨てられた日本の運命である。

ジョナムジン